

21세기 사회와 인문학*

김 광 명**

목 차

1. 문제의 제기: 왜 인문학인가?
2. 현재의 사회상황과 인문학의 위기
3. 21세기 인문학의 전망
4. 맺는 말

1. 문제의 제기: 왜 인문학인가?

이 시대의 인간의 삶은 어떠하며, 다가올 미래에 인간의 삶을 위한 전망은 어떠한가? 인문학은 인간에 관한 학으로서 특히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물으며, 사람답게 살기 위한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탐구이며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이다. 인간은 인간성의 본성에 따라, 어떤 규정된 행동양식이나 삶의 형태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인간은 넓은 유희공간을 지닌 개방된 존재이며,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교육과 자유로운 의미정립을 통해서 구체적인 존재가 된다.¹⁾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은 참다운 자유인이 추구하는 학문이고, 나아가 그들의 언어적 표출에 담겨 있는 삶에 대한 사람들 상호간의 인식과 행위를 보편적 전달 가능성과 소통가능성에 근거하여 탐구하는 학문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인문학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정신적 가치를 체계있게 연구하고 교육하는 데에 있다.

근대문명과 함께 도래한 서구의 과학지상주의, 실용 혹은 효용제일주의는 인문학에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을 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문학이 소박하게 인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만으로

* 이 글은 숭실대학교 개교 101주년 기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발표회(1998. 10. 29)에서 발표된 것임.

** 숭실대 철학과 교수

1) Otfried Höffe, Humanität, Artikel, in: *Lexikon der Ethik*, München: C.H.Beck, 1997, 134-135쪽.

그 존립근거를 다 제시했다고 볼 수 없거니와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옹호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만 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 시대에 적합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서로 대화하는 장소이다. 지금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전환점이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기점이다. 전환기라는 뜻의 'epoch'에는 정지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리고 과거를 되돌아 보기 위해서 일단 정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 대화를 통해 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인가?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일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서구에선 전통적으로 인간을 '지혜로운 자 혹은 이성적 존재자'(Homo Sapiens)로 파악해 왔으며, 인간이성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묻는 이는 칸트(I.Kant, 1724-1804)였다. 지식과 정보, 과학기술 그리고 환경문제는 인간이성을 오로지 도구적으로, 수단적으로만 사용해 온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적 사용의 뿌리를 창세기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에서 보려는 이들도 있다. 즉, 창세기 1장 26-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이다. 여기에 담긴 내용을 우리는 신이 인간에 부여한 선량한 관리자 혹은 청지기의 실천적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다. 이는 생태학적 신학관의 입장이기도 하다. 일방적인 도구나 수단으로서의 자연관이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세기가 도구적 이성에 의해 좌절된 근대의 연장이어서는 안된다. 근대서구 과학 기술문명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성 중심의 세계관은 사유와 존재의 이분법적 구별을 전제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신의 섭리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에 대한 대립적인 관계설정을 통해서 인간자신이 자연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관계로 파악했다.²⁾

전통으로서의 인문학은 윤리도덕적 반성이나 심미적 체험의 충격없이 현대에 대한 자성의 폭을 충분히 넓힐 수 없다. 윤리도덕적 반성과 심미적 체험을 우리의 전통으로부터 현재화시킬 수 있는 인문학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다. 인문학(human learning, science humaine, Humanwissenschaft)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고대 라틴어에서 보다 높은 인간됨에 도달하기 위한 연구(studia humaniora)로서 중세후반에는 교과목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를테면 독일에서는 17세기 이래로 고전어 연구에서 인간성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³⁾ 이를 뒷받침하는 중세이

2) 송두율, 21세기와 대화, 한겨레신문사, 1998, 141쪽.

래 유럽의 자유철교과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전통적 맥락에서는 詩書畫와 文史哲學를 토대로 한 六藝에 오히려 가깝다. 어쨌든 우리의 문화적 전통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으면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항상 반추하는 인문학의 건강성 없이는 지구화와 정보화 시대에 인간됨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란 어렵다. 현대가 제기하는 문제를 전통에 비추어 반성하고, 이에 의거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 전통을 현대에 비추어 자기반성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⁴⁾

왜 인문학을 다시 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자신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서의 인문학은 필연적이다. 인문학의 문제는 곧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탐구이기에 현재의 사회상황 및 다가올 세기예의 전망과 더불어 인문학 안팎에서 논의해보기로 한다.⁵⁾ 그리하여 오늘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며, 인문학의 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문학은 우리의 삶과 시대를 주체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며, 인간을 위한 삶과 앎, 앎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1세기 사회에서의 인문학의 위상과 역할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현대사회에서의 인문학의 위상과 그 내용은 어떠한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다른 학문에 있어서도 크게 예외는 아니겠지만, 특히 인문학에 관한 한, 어떤 사실에 근거하여 21세기를 객관적으로 전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찍이 우리는 어떤 시대에 분명히 옳다고 했던 것이 그 후 오래지 않아 아주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던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확실히 하기에는 불가능하다.⁶⁾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자연과학도 결정론적 실증주의의 한계를 벌써 보이고 있으며, 금세기초의 불확정성의 원리, 상대성원리를 시작으로 최근의 카오스론이나 퍼지론에서 우리는 이런 정황을 잘 알고 있다.

3) D.Klemenz, *Humaniora*, Artikel in: Joachim Ritter(Hg.)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3 Basel/Stuttgart:Schwabe &Co.1974. 1216쪽.

4) 송두율, 앞의 책, 191-192쪽.

5) 필자의 다음 선행연구를 참고하기 바람.

김광명, *삶의 해석과 미학, 문화사랑*, 1996, 특히 제4장 *삶의 학으로서의 인문학*

_____, “인문학의 의미와 방법-삶의 해석학적 이해를 근거로 하여”, *숭실대학교 논문집-인문과학편*, 제23집, 1993, 153-176쪽.

6) D.W. 햄린, *서양철학사(이창대/김광명 역)*, 이론과 실천, 1990, 457-458쪽.

2. 현재의 사회상황과 인문학의 위기

근대 이후 이른바 모더니즘의 시대가 산업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경제 일변도의 수직적 지구화를 추구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세계시민사회를 지향하는 수평적 지구화를 강조한다고 할 것이다. 19세기가 '세분화, 전문화, 명료화를 위한 노력과 세계를 계산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들로 점철되어 있다면 20세기는 공존, 다원성, 불확실성, 상대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것 아니면 저것'에서 '이것 그리고 저것'으로의 태도변화를 울리히 벡(Ulrich Beck, 1944)은 1차근대/현대(단순한 근대/현대)와 2차근대/현대(재귀적 근대/현대)라고 부른다.⁷⁾ 단순한 근대/현대에는 국민국가를 바탕으로 집단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의 파괴를 통해 산업적인 부를 생산하는 사회이다. 단순한 근대/현대에는 지구화, 개성화, 고용감소, 생태위기 등의 문제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기존 단순한 근대/현대의 폐해를 성찰하는 재귀적 혹은 성찰적(reflexive) 근대/현대에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주의적이고 창의적이며 시민참여적인 근대화를 의미한다. 재귀적 근대/현대란 단순한 근대/현대보다 부딪친 벽, 즉 위험사회에서 인간사회가 몰락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방향인 셈이다. 세계시민사회는 비통합성, 이질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점증하는 생태계파괴 등 지구촌의 위기를 공동관심사로 삼는다.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는 어떤 의미에선 逆근대/현대 현상이긴 하지만 전지구적 문제인 생태친화적 시민운동과 연대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⁸⁾

20세기가 보여준 여러 모습을 되돌아 보는 작업은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낙관적인 전망속에서 다음 세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입장, 낙관과 비관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 등이다. 긴장완화를 거쳐 동서냉전의 종결, 그리고 사회주의 퇴조와 더불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가 아닌 제3의 길이 모색되면서 역사도 그의 종착역에 도달했다고 보는 낙관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속화되는 '지구화'(globalization)와 '정보사회' 속에서 세계는 결국 민족국가의 틀을 넘어어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또 다른 낙관론으로 연결되고 있다. 인류역사를 바라보는 태도의

7) 본문에서 문맥상 이른바 modern은 근대/현대 혹은 모던으로, postmodern은 탈근대/탈현대 혹은 포스트모던이란 말로 사용하며, 문맥상 다른 구분없이 사용하는 현대는 당대라는 의미의 contemporary 혹은 금세기 또는 오늘날의 의미를 담고 있다.

8) 지구촌(global village, global community)의 도래를 1964년 M.McLuhan은 그의 <매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에서 예언하고 있다.

울리히 벡, 정치의 재발견(문순홍 역), 거름출판사, 1998 참고.

네가지 유형은 진보와 퇴보를 막론하고 인류의 발전을 하나의 직선에 비추어 설명하려는 단선적 경향, 진보와 퇴보가 항상 순환하고 있는 상대적인 관계로 파악하려는 순환적 경향, 직선적 사고와 순환적 사고를 결합시킨 변증법적 사고의 나선형, 역사에는 애초부터 일관된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迷路형이 있으며, 특히 현대사회에 팽팽산 미로형은 불확정성 원리, 카오스이론, 보드리야르(J.Baudrillard)와 같은 포스트모던의 사상 그리고 세기말적 정서를 잘 반영한다.⁹⁾

정보화, 과학기술이 주는 변화, 그 과학기술에서 비롯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 등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바꾸어 가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인간성의 위기에서 비롯된다. 르네상스 시기의 인문학이 끝내 진정한 의미의 휴머니즘에 이를 수 없었음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무렵의 인문학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시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을 만한 통합력과 개방성을 지녔는가¹⁰⁾를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물음은 시대의 제약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인문학을 현재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우리시대의 문명과 사회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가치와 어떤 지향성을 지니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는 일과 관련지어 본다면,¹¹⁾ 인문학 연구는 전통적인 의미의 인문학에서 벗어나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의 사회상황에 직결되는 문제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삶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가치관의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¹²⁾ 그것은 곧 우리의 지적, 예술적,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복돋우는 일이다. 지금은 인문학계가 위기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능동적으로 모색할 시점이다. 인문학이 앞으로 우리사회의 학문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욱 분명한 반성과 성찰, 실험을 토대로 한 인접학문과의 유기적 연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문학은 도덕적 목적을 위해서 문학, 역사, 예술을 관통하는 오늘날의 서구 인문주의와 친근관계를 지니고 있다. 인문학연구에 필요한 감정이입과 초월, 정신의 유연성과 개방성 등은 열린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시민적 자질이 된다. 또한 인문학의 해석방법들은 다원 사회에 요구되는 시민적 덕성을 계발한다.¹³⁾ 이런 뜻에서 인문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

9) 송두율, 앞의 책, 15-17쪽.

10) 최갑수, “인문학의 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제언”, 전국대학 인문학연구소 협의회(편), 현대사회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 민속원, 1998, 207-208쪽.

11) 장희익, “인문학의 위기를 보는 한 관점”, 전국대학 인문학연구소 협의회(편), 현대사회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 민속원, 1998, 213쪽.

12) 유네스코 제29차 파리총회에서 채택한 두가지 안건, 즉 ‘인간 유전자에 관한 선언’과 ‘현세대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에 관한 선언’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13) 유종호, “서양의 인문학-단초에 대한 고찰”, 전국대학 인문학연구소 협의회, 현대사회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 민속원, 1998, 12쪽.

이념과 만난다.¹⁴⁾ 인문주의적 예술과 역사는 인간본성탐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시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우리자신을 아는 器官(Organon)이며 우리의 인간적 우주를 만들어 내는데 불가결한 도구이다.¹⁵⁾ 근대의 인문학과 교육-덕성을 지향한 교육이념인 고대 그리스의 파이데이아는 그 성질상 일생동안 계속되는 성인교육이자 평생교육이었다. 그것은 완전한 시민을 목표로 하였으며 착하고 아름다운 인간을 그 이상형으로 삼았다. 이는 서양인문학의 역사적 근원과 유래이며 그 기본정신인 것이다.

서구 근세의 인문학은 이탈리아의 휴머니스트들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문명>(1860)에서 부르크하르트(J.Burckhardt, 1818-1897)는 휴머니즘을 인간존엄성에 대한 관심으로 보았다. 신 중심적인 중세와 인간중심적인 르네상스라는 이항대립적인 구조에서 휴머니스트는 인문학의 직업적 교사로서 활동했다. 인문학의 내용을 이루는 여러 교과들은 인간을 숭고하게 만드는 분야였으며, 르네상스 지적 운동의 특징은 휴머니즘이었다. ‘인간을 인간답게, 숭고하게’라는 말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이상이였다. 나아가 이는 모든 교육의 기초를 형성할 의식 또는 세계관의 창조이며 이것은 문학연구와 전인적 발전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달성되었다.¹⁶⁾ 역사적 기원으로서의 인문주의는 교양을 쌓은 아름답고 도덕적인 개인으로서 대변되며, 이 때 개인은 철학, 예술, 정신과학 및 고전애에 의해 규정된다.¹⁷⁾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전은 인간과 자연을 거시적으로 담아내는 지혜의 보고이다.

르네상스 이후 근대에 이르까지 특히 인간교육의 목표는 폭넓고 전인적이며 도덕적인 인간형성이었다. 인문학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개념들은 이를테면, 발전, 성장, 생성, 양성, 교양,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덕성, 형성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근대의 인문교육 이상의 핵심에 있는 것은 ‘형성 혹은 교양(Bildung)’으로서 가다머(H.-G.Gadamer, 1900-)가 18-9세기의 가장 주도적인 인문적 이념이라 부른 바 있다.¹⁸⁾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은 보편타당한 인간성을 사교의 구심점으로 삼았다. 사람됨, 곧 인간성이 휴머니즘의 기초개념이요, 인간이 인간적인 것으로 올라서려는 일치노력이 휴머니즘이다.

14) 미국 예술, 인문학 대통령위원회(The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의 보고서인 ‘창조적 미국(Creative America)’에는 예술과 인문학의 창조적 힘이 민주주의의 강화를 가져오며, 또한 시민사회의 창조성, 다양성, 상상력등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자료집, 1997, 4쪽.

15) Ernst Cassirer, An Essay on Man: An Introduction to a Philosophy of Human Culture, New York: Anchor Books, 1954, p.260.

16) 유종호, 앞의 글, 16-17쪽.

17) Otfried Höffe, 앞의 글, 135쪽.

18) Hans-Geor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Tübingen: J.C.B. Mohr, 1975(4. Auf.), 8-9쪽.

물론 오늘날 우리의 인문학이 고대나 근대의 인문학과 그대로 같을 수는 없으며, 동서양의 인문학은 분명히 양자간에 특수한 지역정서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으나, 차이속에서 동일함을, 그리고 동일함속에서의 차이를 밝히는 일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어쨌든 서구의 인간중심주의 인문학은 우주안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일방적으로 자리매김한 혐의가 짙다고 하겠다. 원래는 인간의 본성(nature)이 인간의 자연성(nature)이어야 할 터인 데, 서구 인문주의는 점차로, 자연성이 아니라, 오히려 초자연적이거나 반자연적인 모습을 하게 되었다. 서구근대의 사고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nature)은 자연(nature)속에서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¹⁹⁾ 이에 반해 동양적 人性은 天性和 동시에 되었고, 物과 我가 미분화된 하나이다. 서구에 있어 인간의 본성은 이성적이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해왔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신의 질서를 발견하고, 자연을 극복하고 이를 인간을 위해 이용하며, 자연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능력에 기인한다. 서구적 이성은 도구적 이성에 흐르게 되어 자연적 질서에서의 순응이나 조화라는 개념을 낮설게 여긴다. 우리는 이성중심적 서구 인문학을 비판하면서도 그 대안으로서 非理性이나 反理性이 아닌 입장이어야 할 것이다. 이성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는 일이다. 이를테면 이성의 실천적 맥락을 강조한다거나 이성의 유비로서의 심미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이성의 전횡을 막고 인간인식의 영역을 보완하고 확장한다는 말이다.

인간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인간자신에 대한 탐색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한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정하는 척도는 이제 더 이상 인문적 가치가 아니라, 量化되고 物화된 市場性 혹은 영리적 이윤추구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말았다. 이러한 量化와 物化는 현실을 그의 내재적 목적에서 분리시켜, 결국에는 참을 선택과, 과학을 윤리와 떼어 놓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대는 인문학을 단순한 위기에 몰아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성에 대해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종류의 학문의 위기는 자기정체성의 상실에서 온다고 하겠으며, 인문학의 위기로 여겨지는 사태는 인간성이나 인간적 삶의 위기이다. 특히 인문학의 경우는 논의해야 할 주제가 현실사회의 필요성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을 때 더욱 심각해진다. 그러나 이 사회가 인간과 인간적인 삶을 포기할 수 없는 한, 이 위기의 사태는 역설적으로 이 시대와 사회로 하여금 인문학에 새로운 소임과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인문학의 의미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정신적 가치를 체계있게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근대문명과 함께 도래한 서구의 과학지상주의, 실용제일주의는 인문학에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을 가해왔다. 이러한 도구적이고 실용적인 대세속에 대학에서 마저도 교과로서의 인문학의 위기

19) 남경희, “인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인문학”, 전국대학 인문학연구소 협의회, 현대사회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 민속원, 1998, 27-28쪽.

는 시작되었다. 이성의 원래 기능회복과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을 목표로 하여 학문의 기반이 되는 인문학이 대학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한 가치관의 혼란과 부패, 부조리의 만연 등은 모두 물질적 성장만을 추구한 것에서 비롯됐다. 대학은 단순히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지식을 전수하는 장소가 아니고, 문화적 창조와 실천적 의지의 공간이 되어야 하므로 모든 학문의 본질인 인간성의 회복과 인간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각 대학은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 인문교양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²⁰⁾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은 창조적이고 비판적이며 반성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인문학의 위기는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자본간의 무한경쟁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발전, 이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고 있는 정보화사회론과 탈근대론에 의해 더욱 촉발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날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이 고유하게 지닌 규범적, 비판적, 반성적 기능의 상실에 그 원인이 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인문학의 위기와 좌절의 극복은 인문학 자체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여 인문학자들의 학적 태도와 자세, 즉 소극적이고 주변적인 성격에서 적극적으로 중심적인 자세로의 전환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이론과 방법, 그리고 응용을 통한 삶에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1)우주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2)도덕과 윤리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항상 사고하고 경험의 차원에서 실천하고, 3) 다른 문화권과 다른 시대에 관하여 무지한 나머지 세계와 사물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좁거나 폐쇄되지 않아야 한다.²¹⁾

세기의 전환점에서 인문학이 인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만으로 그 존립근거를 제시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옹호받을 가치라고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다움'에 대한 인문학의 독점적 정의가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위기의 진원지는 오히려 인문학 내부에도 만만치 않게 자리잡고 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인문학 자신의 모습을 바꿔내는 일이다. 인문학의 위기는 학문 자체의 문제 외에 인문학자의 개인적 폐쇄성, 개인적 구도주의, 지나친 전문가주의에서 오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각 학문간, 각 학자간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열린지평을 토대로 학제간 협동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어떤 특정 시대나 지역의 인문학을 붙잡고서 그것에 무관심한 다른 학문이나 대중 혹은 그러한 사회를 닮으면서 위기의식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에 특유한 상황이 제기하는 인간의 새로운 문제들을 분석하고 탐색할 일이며,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모색

20) 1992년 10월 29일 서울대 인문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과제, '20세기 문명의 인문학적 연구'나 1997년 11월 전국 21개 국공립대학 인문대 학장들이 제주대에서 행한 '인문학위기 선언'을 참고하기 바람.

21) 이는 바로 미국 하버드대학의 교양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며, 그 교육내용으로는 문학과 예술, 역사연구, 사회의 분석과 윤리의 규명, 과학, 외국문학의 5개 영역이 있다.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간을 포기할 수 없으며, 그런 한에서 인문학은 필연이다.

3. 21세기 인문학의 전망

20세기를 경제·산업이 주로 지배하는 시대라 한다면, 세기말적 전환기에는 지식과 정보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21세기에는 문화와 멀티미디어의 영상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다음 세기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정보·문화산업이 널리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첨단기술이 창출할 새로운 지식과 정보, 영상매체는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세련되고 풍부한 고부가 가치의 문화상품일 것이며, 이는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과 결합된 창조적인 예술창작의 축적된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온전히 준비될 수 있다. 이러한 준비없이 단순히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문화권으로 만들되, 민족과 지역이 지닌 다양하고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엄청난 속도로 허물 것이기 때문이다.

첨단의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다가올 세기에 사회발전의 핵심적인 주축이 된다고 했을 때에,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혁신과 풍부한 문화적 지식, 정보, 창의력 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인문학적 지식과 예술적 상상력은 눈에 보이는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와는 달리 단계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특히 문화 예술에 있어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풍부한 상상을 토대로 기존의 법규를 벗어나는 破格이 때로는 필요하며, 새로운 틀을 발견하기 위한 창조적 사고와 실험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의 토대는 인문학이다. 금세기 초의 유럽에서의 전위예술과 미국에서의 실험예술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지식생산의 양태와 그 모습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른바 오늘날 서구사회에서의 지식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이 조건을 기술하기 위해 리오타르(J.F. Lyotard, 1924-)는 ‘포스트모던’이라는 말을 사용한다.²²⁾ 시공간의 압축이 가속화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포스트모던 조건이 형성된다는 말이다. 오늘날 다문화의 복합화 현상은 시공간의 압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자본화된 시간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즉흥성과 순간성, 우연성이 강조된다. 물론 근대적 문화세력으로 등장한 모더니즘에서 이미 시공간의 압축이 서서히 시작되었다고 하겠지만,²³⁾ 20세기 후반 이후

22) 장 프랑소와 리오타르, 포스트모던의 조건(유정완 외 역), 민음사, 1992, 33-36쪽.

23) 데이빗 하비(David Harvey),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구동회/박영민 역), 한울, 1994, 16-17절.

지식생산의 성격과 조건이 크게 변했다. 18세기에서 20세기 중엽에 걸친 근대적 지식은 지시적 성격이 강하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기술적, 수행적 성격이 강해졌다. 특히 사이버문화, 인공지능적 테크노문화로 대변되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변화와 매체의확장은 교통과 통신에 의한 인적, 물적, 정보적 교류의 기술 발전에 의한 시공간의 압축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시공간의 압축과정이 느리게 진행되었던 거대담론 혹은 대서사(*grand discourse*)에는 정신의 변증법, 의미의 해석학, 이성적 주체 등이 있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은 대서사에 대한 불신과 회의이며, 이 회의는 과학진보의 산물이다. 포스트모던은 차이를 인정하도록 해주고 통약불가능한 것에 대해 관용을 전제한다.

인간의 자기이해를 둘러싼 논의는 금세기 초 실존주의와 더불어 치열했지만, 이는 21세기 인문학의 전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인간의 자기이해의 場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든다. 요즈음 귀가 따갑게 듣고 있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 가상민주주의(*virtual democracy*), 가상공간(*cyber space*), 가상체제란 사실 비현실이나 허상이 아니라 잠재성의 차원에서 현실공간의 확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²⁴⁾ 가상과 현실의 장이 還流(*feedback*)된다는 말이다. 현대과학, 정보과학이 이와같은 잠재성들을 새롭게 발견해내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최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서로 연관지어 진행되고 있는 통합학문 연구의 일환인 ‘문화연구’는 특히 주목할만하다. 이는 문화산업이나 문화공학이라는 말과 더불어 사회적 삶의 현실공간속에서의 인간의 정신과 육체로부터 새로운 잠재성의 공간을 탐색하며 넓히고 있다.²⁵⁾ 지구화, 정보화의 가속화로 인한 사이버문화의 확장에 따른 21세기 인문학의 발전방향은 지식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른 인문학의 재편가능성과 주체화양식의 변화에 따른 인문학의 비판적 기능의 새로운 활성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자기성찰적 또는 사회비판적 기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인간다움의 추구는 이미 인문학이 오랜동안 추구해온 기본적인 연구목적이다. 위기탈출의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삶의 제반 양식에 대한 탐구인 문화연구를 중심으로 한 학제간 접근과 소통이 가능하며, 또한 합리적인 차원의 철저한 규명을 전제로 한 해석학적 접근방법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의 탐구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동서양의 인문학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하고 현대인문학의 현황을 검토한 뒤, 다가오는 세기의 인문학에 대한 전망과 방향을 통해 위기에 처한 인문학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한 인간품성의 도야는 인문학이 위기에 처한 오늘날의

24) 가상체제는 즉, *cyber*와 *cracy*를 어원으로 하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정보를 통한 지배를 뜻한다.

25) 심광현, “21세기 인문학의 발전방향: 테크노/사이버문화의 지식생산/주체와 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전국대학 인문학연구소 협의회, 현대사회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 민속원, 1998, 139-141쪽.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일의 근본적인 출발이 된다.

진보와 발전, 지구화, 정보화, 탈현대, 생태학, 과학기술, 여성해방, 예술 등 삶의 양식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21세기의 인문학을 전망하는 일은 지금까지의 인문학 연구 방법의 성과를 어떻게 우리의 삶의 전통과 접목시킬 것인가 그리고 인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그 동안 서로 차단되었던 각 영역의 울타리를 어떻게 허물고 상호소통하게 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전지구적인 차원의 보편적 문제를 우리의 시각에서 정리하는 일은 21세기 새로운 한국 인문학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익숙한 관념에 대한 철저한 자기부정과 비판 없이는 새로운 진보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없으며, 우리의 사고지평을 넓히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삶의 의미와 내용을 물으면서 우리사회를 분석해보면, 이른바 서구에서 말하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나 ‘역사의 종언’은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첨예한 도전의 장이 되고 있는 중에도 한편으로는 탈근대/탈현대를 거쳐 그 이후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근대/현대와 탈근대/탈현대, 그리고 그 이후는 무엇인가?

근대/현대, 근대주의/현대주의(modernism), 근대성/현대성(modernity) 또는 근대화/현대화(modernization)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내용은 보는 방법과 각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근대/현대’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에는 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 옹호와 비판, 수용과 극복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근대/현대는 ‘미완의 작업’이기 때문에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근대/현대는 이미 생명력이 소진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대/현대와 결별하고 새로운 지평을 찾아야 하며, 또 이 새로운 지평이 이미 나타나 있다고 보는 ‘탈근대/탈현대’의 입장이 있다. 전통적 질서안에서 안정을 추구하려는 보수주의 또는 더 나아가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근대/반현대적인 입장이 있다. 하버마스(J.Habermas, 1929-)의 근대성/현대성의 기획은 전통에 대한 비판적인 기억이나 철학, 과학, 예술을 매개로 한 자기정체성과 연관된 체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근대/현대는 미완의 기획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²⁶⁾ 근대/현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보수주의자들 가운데에도 근대적/현대적 세계이해가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학문과 도덕, 예술의 분화에서 현대가 맞고 있는 위기적 상황의 근본요인을 찾고,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윤리 질서의 회복을 통해 안정을 되찾으려한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있다. 다른 한편, 근대/현대의 결과물인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문화적 근대/현대에 대해서만 유독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보수주의자들이 있다.²⁷⁾

26) Jürgen Habermas, *Die Moderne-ein unvollendetes Projekt*, *Kleine Politische Schriften*, 1981, 444-464쪽.

27) 송두율, 앞의 책, 29쪽.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회의와 불안이 자리잡은 서구사회에서, 울리히 벡이 지적하듯이, 제2의 근대/현대라는 관점은 분명히 새롭다.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이 문제라는 제2의 근대/현대의 반성은 중요하다. 제2의 근대/현대를 성찰적 근대/현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근대/현대를 계몽된 근대/현대나 자체 교정된 근대/현대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산업적 근대/현대가 생산한 불안과 위협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근대/현대라는 판단이 놓여 있다.²⁸⁾ 미래의 전망이 불분명하면 할수록 자신을 반성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4. 맺는 말

인간의 복제 가능성까지 현실화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과학기술이 반드시 인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생명산업의 긍정적인 측면외에도 이미 유전자조작이 가져올 재앙을 점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과학적 지식과 인문적 지혜를 종합하여 인간의 삶을 우주적 생명체라는 하나의 큰 틀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²⁹⁾ 인문학의 목적은 ‘의미있는 삶’의 추구이다. 자연에 대한 연구조차 이 목적에 궁극적으로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서구의 자연과학은 물질현상과 인문현상을 나뉘, 물질현상에 대한 분석적 지식은 비교적 정확하게 얻어냈지만, 이런 조각 지식으로는 ‘의미있는 삶’이라는 인간의 목적을 이룰 수는 없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과 인문적 지혜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인류문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전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보아, 서양의 근대과학이 철저하게 분석적 기계론적 결정론적이었던 데 반해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전통과학은 종합적 유기체적 비결정론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비결정론적이라는 면에서 동양의 전통과학은 현대물리학과 닮은 점이 있으며, 나아가 동양의 전통과학이 근대과학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현대과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³⁰⁾ 이 점에서 동양에서는 전통과학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포스트모던’ 시대에 맞는 유연하고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동아시아 학문론은 안과 밖,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아 주체는 지식속에 내면화되며, 지식은 주체의 한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體得, 곧 몸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몸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지식을 대상화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윤리적 주체의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선인들이 말한 지식은

28) 송두율, 앞의 책, 37-40쪽.

29) 장희익, 삶과 온생명, 숲, 1998 참고.

30) 조지프 니덤, 중국의 과학과 문명(클린 로런 줄임, 김영식·김제란 역), 까치퍼냄, 1998 참고.

일상생활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닌 삶의 철학이다.³¹⁾ 이는 현대 서구사상의 중요한 모멘트인 몸의 현상학이요, 지각의 현상학의 근본주장과 맥락이 닿아 있다.

미래의 삶에 대한 전망은 오늘의 현실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에서 가능하다. 인문학은 늘 학문 그 자체를 문제삼아 왔다. 인문학자들은 학문의 근본적인 문제들 뿐 아니라 학문자체에 대해서도 반성한다. 이른바 학문에 대한 점검을 ‘학문론’(Wissenschaftslehre)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다. 학문의 기초와 전체 그리고 학문의 사회적 기능과 내적 연관을 철학적으로 문제삼는 것이다. 학문의 어느 영역이나 특정방법에 대한 해명이 아닌 학문전반의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유럽문명권이 주도한 근대학문은 전문화를 장기로 삼아 커다란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많은 폐단을 자아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근접되고 통합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기초과학의 발전없이 응용과학이나 공학의 발전이 공허할 수 밖에 없고, 건강한 철학이나 인문학의 토대없이 사회과학의 현실접근도 맹목일 수 밖에 없다. 상호전제와 보완의 관계속에서 개별학문 또한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과학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시정하고, 과학적 지식과 인문적 통찰을 아우르는 학문을 해야 한다. 그러할 때 의미있는 삶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나온다.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인 윌슨 디저드 주니어는 통신,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전세계의 정보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으려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세계의 시장을 단일 통신망으로 묶는 네트워크 자본주의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메가넷’(meganet)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듯 지구적 그물망에서 살고 있다.³²⁾ 우리의 모든 것이 노출된 지구적 그물망이라는 ‘무한경쟁논리’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학문론의 전반적인 득세속에서 인문학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 위기와 관련하여 멀티미디어가 세상을 뒤덮을 21세기에 문자예술로서의 문학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도대체 살아 남거나 할 것인가 하고 우리는 물을 수 있다. 컴퓨터 문화의 급격한 발전앞에 ‘문학의 죽음’에 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문화산업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문학의 비판성과 자율성은 위기를 맞으며 뉴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활자매체인 문학이 문화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 영상등과 같은 비활자 매체의 문화현상이나 스타일을 수용하거나 책이 아닌 매체를 통한 글쓰기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디지털시대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 표현영역을 넓히는 문학이란 체제에 순응하여 영상매체의 시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에도 저항하고 비판하

31) 박희병, 선인들의 공부법, 창작과 비평사, 1998.

32) 윌슨 디저드 주니어, 메가넷, 민음사 1998. 여기서 메가넷(meganet)은 첨단 전세계 통신 네트워크를 뜻하는 造語이다.

는 인간능력의 상징으로 기능할 것이다.

인문학과 대립적으로 보는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카오스 이론은 상태보다는 과정을, 존재보다는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외관상으로는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으로 보이지만 내적인 질서와 규칙성을 갖는 자연현상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효율성과 발전가능성을 굳게 믿었던 현대의 과학적 패러다임이 위기에 처하면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혁명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학적 과제로 '無에서 우주의 탄생'과 '인간의 마음'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전자의 문제는 중력을 기술하는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통일하고 통합하는 이른바 '모든 것의 이론'이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후자의 문제는 '마음의 과학'이 해결할 부분이다. 특히 마음의 과학이라 우리가 지칭할 때, 서구의 합리적인 과학정신과 동양에서 성장한 마음의 세계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인간과 자연 혹은 우주를 깨어 있는 눈으로 이해하여 참다운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과학'이 던지는 지혜로운 통찰에 주목해야 한다.³³⁾ 토마스 쿤(Thomas Kuhn)의 <과학혁명의 구조>(1962)는 자연과학의 靜인 분석의 한계를 인식하고 動的 역사적 접근을 한 좋은 예이다. 전통적으로 동적 역사적 접근의 몫이 인문학이었음은 더 말할나위 없다.

그러나 학제간의 연구에 모두 목을 높여 소리치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내러진 결론은 아직 없다. 결정론적 닫힌 자세가 아니라 자유와 상상력에 바탕을 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철학의 영역에서 보면, 철학적 닫힌 이론이나 지식보다는 철학함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철학함은 우리자신의 주체적인 사유를 토대로 우리의 삶과 시대를 반성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이는 그대로 인문학에 적용된다. 우리 학문이란 곧 우리의 삶과 삶, 삶과 행동의 원환적 일치를 뜻한다.

인문학의 내용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환경, 여성, 인종, 지역, 페미니즘, 해체 등 인간과 연관된 모든 문제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인문학의 과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에 향해져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 진리탐구는 인간적 실천행위와 동떨어질 수 없다. 학문에 있어 실천이란 무엇인가. 지난 과거의 구체적 것에서 보편화된 것을 다시 현재속에서 구체화시켜 보편성의 실현을 보여주는 일이다. 필연적인 보편성은 늘 구체성속에서 시간을 넘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실천의식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삶속에 살아 있게 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기가 도구적 혹은 수단적으로만 쓰여진 이성에 의해 좌절된 근대/현대의 연장이어서는 안되며 자유와 소통이 가능한 열린 삶의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33) 박만엽, 21세기 과학, 인간과 자연 이어주는 '마음의 과학으로' 중앙대신문 1403호, 1998.9.21.